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부활 제3주일 2016.4.10.(다해) 제1993호



왜관 가실성당 감실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요한 21,1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실의에 빠져 있던 제자들은 다시 옛날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께서서는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기 잡이를 한 제자들에게 직접 아침을 챙겨주시며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1독서 사도 5,27-32,40-41 **제2독서** 묵시 5,11-14 **복음** 요한 21,1-19.

입당송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영성체송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부활의 의미

류지현 마태오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손에 그물을 잡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 낚는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버렸던 그물과 배를 다시 붙들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제자들처럼 그물과 배를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어느새 다시 그것들을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재차 삼차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께 불림 받은 빛의 자녀로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진정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도 제자들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그들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버렸던 그물과 배를 다시 붙들고 있는 제자들처럼 혹시 나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던 그물과 배를 다시 손에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활은 다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다시 새롭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낡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로**

학교 밖 아이들

밥 짓기의 마법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대안교육담당

투명 망토의 아이들은 오직 두 가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는 손에 꼭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고 다른 하나는 돈입니다. 이 아이들에겐 스마트폰과 돈만 있으면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이란 짐작하는 것처럼 게임이나 특정되지 않는 수많은 가상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없는 대화들입니다. 돈으로 하는 일은 주로 피시방과 편의점에서 이루어지고, 특별히 담배 구입과 흡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무한정 쓸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늘 무언가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눈빛과 마음에 늘 공허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의 모든 부적응 청소년들이 중학교 때부터 위기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청소년들이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가장 결정적인 욕구가 '애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들의 결핍은 바로 '애정'입니다. 아이 부모들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핍을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흡연 같은 것으로 충족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공허함은 배고픔이나 허기짐으로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단순함이 이들의 투명 망토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국 '먹거리'로 길을 틔웁니다. 이 아이들은 흔히 말하는 '집밥'이라는 것을 먹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밥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엄마의 정성스런 손길이 담겨져 있는 밥상을 요즘 아이들은 좀처럼 구경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내음이 무언가 아련한 감성을 자극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보면 역시 제대로 음식을 해 먹는 것이 최고의 애정 표현이며 아이들의 투명 망토를 벗겨내는 마법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맛있는 밥 짓기로 아이들 마음에 구애를 합니다. **필문**



학교 밖 청소년·학교 부적응 학생 관련

문의: 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053)643-7624

후원: 대구은행,

505-10-178097-9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꿈뚝자리)

탈렌트

TV에 나오는 연기자들을 보고 흔히 탈렌트 (Talent)라고 부릅니다. 탈렌트는 원래 ‘재능’ 또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TV연기자, 배우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탈렌트라 하면 TV배우뿐만 아니라 가수, 코미디언, 사회자, 영화배우 등의 연기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렌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KBS가 개국하면서 텔레비전 배우를 공모하여 선발했는데 이때 처음 탈렌트라는 말을 사용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기노 바이너트_탈렌트의 비유

탈렌트의 어원이 되는 탈렌트는 희랍어 탈란톤(talanton)의 번역으로 원뜻은 ‘저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울에 달아 본 것’으로 확대되

었고 나중에는 저울에 다는 것의 제일 높은 단위가 되었습니다. 후대 희랍인들과 로마인, 유대인들은 질량과 화폐의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던(마태 20,2) 예수님 시대에 한 탈렌트는 육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상당히 큰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이 탈렌트가 지금의 의미가 부여된 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탈렌트의 비유”에서입니다. 마태오복음 25장 14절~30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를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탈렌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날 다섯 탈렌트를 맡은 종과 두 탈렌트를 맡은 종은 주어진 탈렌트를 잘 활용해서 각각 두 배씩 탈렌트를 늘려 상을 받았지만 한 탈렌트를 맡은 종은 맡은 한 탈렌트마저 빼앗기고 쫓겨나고 맙니다. 이 비유에서 탈렌트, 즉 탈렌트가 하늘이 내린 재주, 재능이란 뜻을 얻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외모와 남다른 재주로 많은 인기를 누리는 탈렌트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작 부러워하고 바라야 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탈렌트를 하느님 뜻에 맞게 쓰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누구에게나 탈렌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탈렌트가 누구를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고 돈이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재능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에 잘 활용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필로**

열두 사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마르 1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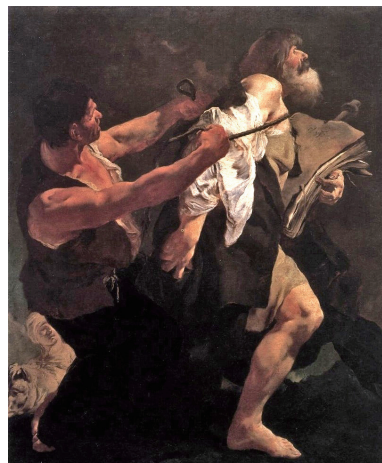
열두 사도들 중 첫 순교자 (대)야고보 사도

열두 사도들 중 야고보라는 이름을 지닌 분이 둘 있는데 그 중 알패오의 아들로 주님의 사촌이신 분을 차(次)야고보 또는 작은(小)야고보라 하고, 사도 요한의 형으로서 제베대오의 아들이신 분을 구별하여 장(丈)야고보 또는 큰(大)야고보라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의 동업자(루카 5,10)로 어부였던 야고보 사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인께서는 동생이신 요한 사도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보아네르게스”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마르 3,17)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자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려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루카 9,54)”라고 물을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와 함께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 가장 큰 순간의 증인이 되셨던 야고보 사도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병든 장모를 집으로 찾아가시어 치유시켜 주셨을 때(마르 1,29),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실 때(마르 5,37),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마태 17,1), 겟세마니 올리브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마르 14,33)와 부활하신 후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요한 21,2)에도 그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를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신 성인께서는 헤로데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하셨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순교하시기 전에 스페인에서 전교를 하신 인연으로 성인의 유해는 스페인 북서쪽



피아체타 『성 야고보의 순교』(1722)
베니스 산 스타에 성당

갈리시아 지방으로 옮겨져 모셔졌습니다. 훗날 이곳에 야고보 사도를 기리는 성당이 세워지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라는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며 콤포스텔라는 ‘별들의 들판’이란 뜻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출발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코스로 장장 8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야고보 사도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을 안고 걸으셨던 길이라고 하는데 614년 예루살렘이 사라센에 점령을 당해 순례가 금지되자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대신해 콤포스텔라를 선택했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세계 3대 순례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

교구장 동정

■ 성모애덕의집 백수잔치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3월 29일(화) 오전 11시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소속 성모애덕 의집에서 열린 백수잔치에 참석하여 백수와 팔순을 맞이한 어르신들을 축하하였다.

사진제공 : 월간 <빛>

■ 왕벚나무 통합 생태론 컨퍼런스 기념식수



왕벚나무 통합 생태론 컨퍼런스를 기념한 왕벚나무 식수가 4월 4일(월) 오전 1시 교구청 본관 뒤뜰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와 정홍규(아우구스티노) 신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소식

■ 대구주보 2000호 기념 _ 신앙생활체험 수기 공모전

주제 : • 대구주보와 함께 한 신앙생활의 에피소드
• '자비의 희년'을 맞아 용서와 사랑에 대하여
•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를 사는 우리의 모습
(3개의 주제 중 택 1)

분야 : 수필 / 시 (1인 1작품만 출품 가능)

형식 : A4 용지 11 포인트 1장 / 200자 원고지 7~8매

기간 : 2016년 4월 11일(월)~5월 10일(화) 마감일 도착분

접수 : 교구 문화홍보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jubo@dgca.or.kr

※ 자세한 사항은 대구주보 홈페이지(<http://www.daegu jubo.or.kr>) 공지사항 참고



■ 고(故) 김수환 추기경 추모 공원 및 전시관 설립

대구대교구에서 군위군과 함께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 추모 공원 및 전시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교구내외 신자분 중에서 김수환 추기경과 관련된 자료(문서, 박물, 사진 등)를 기증하실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십시오.

문의: 교구 관리국, 250-3010

내가 새롭게 태어났듯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11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미사	4월 11일(월) 19:30 4대리구청 회의실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4월 11일(월) 11:00 황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11일(월) 11:00 신평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미사	4월 12일(화) 19:30 교구청 별관 302호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11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4월 16일(토) 10:00 월성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11일(월) 11:00 월성성당	프란치스코를 위한 후원회미사	4월 16일(토) 15:00 프란치스코

성소 | 피정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4.16(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주최: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문의: (010)3800-1579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4.17(매월 셋째주일) 14:00

장소: 칠곡수련원

문의: (010)3113-6219

빈마음 성소 모임

일시: 4.17(일) 14:00

장소: 수원 본원 / (010)8833-8107

주최: 성빈센트드뽐자비의수녀회

예수회 성소 식별 피정

기간: 4.22(금)~24(일)

문의: (010)6245-1608

<http://vocation.jesuits.kr>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4.15(금) 23:00~17(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 (031)262-7600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교육 | 모집 | 기타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시: 5.15(일), 남양성모성지

신청: 4.16(토)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 동화구연2급, 오카리나,

수지침, 원어민영어, 필라테스, 발성법, 가

곡성가, 하모니카성가, 미술심리상담2급,

창작소설, 중급·왕초보관광영어, 제대·사

범꽃꽃이, 장구병창 / 신청: 254-6115

무학연수원 가족캠프 참가자 모집

1차(부부캠프): 5.7(토)~8(일)

2차(가족캠프): 5.14(토)~15(일)

3차(가족캠프): 5.28(토)~29(일)

문의: (054)932-0620 / (010)4501-7866

27차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모집: 청소년영어캠프, 부모동반연수,

대학생 영어연수·해외봉사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센터

출발: 청소년 및 가족(1차 7.19 2차 7.23)

대학생(6.25) / 문의: 593-1273

2S Bible

일시: 격주(토) 14:00~16:00

장소: 바오로딸서원(동성로)

주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Sound)

읽은 내용을 공부하는(Study)2S 바이블

문의: (010)2503-5185

오순절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물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김명옥, (010)5529-3186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일시: www.fmayouth.or.kr 참조

장소: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대상: 초3~초6

문의: (062)373-0942 / (010)8621-0940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팬션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꽃 들메꽃
간자방사
자연친화적식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053)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영미 카타리나

통합의료진병원
전인병원
Comprehensive & Integrative Medicine Hospital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진료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내과
병원장 손기철(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대표전화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 중 문(파비올라)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연재(맥의)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U & 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갑 (아네스)

다비드제통외과
비수술적 척추,관절,신경,인대 치료 전문
물리치료에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통증 전문

원장 권영득 (다윗)

Tel : 053)351-1704

칠곡 동아백화점 사거리
지하철 3호선 칠곡운암역에서 도보 10분

치질수술 내시경 건강검진 **하는 병원**

대형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입원실
www.hangmuns.com
늘시원한 **한성병원**

노성균
의사장
대우파티널 959-7175

행사 | 모임

4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4.17(성소 주일) 14:00~16:00

올해 성소 주일 행사는

예비신학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제5회 교구장기 게이트볼 대회

일시: 5.10(화) 9:00 개회식

장소: 성서 실내게이트볼구장

마감: 4.12(화)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가정 공감 예술제

일시: 5.1(일) 10:00 / 마감: 4.15(금)

장소: 교구 별관 대화합실·성모당 일대

신청: 어른 1만 원, 학생 5천 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http://cafe.daum.net/biap>

본당 설립 25주년 은혜의 밤

일시: 4.19(화) 19:00

장소: 상인성당 성전

내용: 찬양, 미사 및 안수예절

특강: 이상재(가스톨) 신부

문의: 상인성당, 639-1900

성베네딕도회 성소 주일 행사

일시: 4.17(일) 9:3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본원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61)

신청: (010)8353-2323

2016 대구 성령 축제

일시: 4.16(토) 10:00~18:00

장소: 월막피정의집(대구성령봉사회관)

주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마태 9.27)

강사: 이로니 스펠다로(Ironi Spuldar)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교육 | 모집

대학생을 위한 예비자 교리반 개강

일시: 4.17(일) 18:00 첫모임

장소: 삼덕젊은이성당 101호 강의실

문의: 교구 청년국, (010)8692-5695

4월 가나 강좌

일시: 4.17(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 원(당일 접수)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4.10(일) 15:00 / 회비: 1만 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ME주말-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0차 ME주말: 4.22(금) 19:00~2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 통기타, 우쿨렐레, 플루트, 오

카리나, 바이올린, 성인생활영어회화,

성가반주법, 동화구연·시낭송지도자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 텃생·유화·수채화

문의: 476-6211(지하철1호선 교대역)

4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4.16(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김청자의 아프리카 사랑

강사: 김청자(아네스)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안창옥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내용: 사제단 명부 및 주소, 본당, 평신

도위원회 및 제단체, 교구 산하기관 등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천연염색공방 풀라빛
http://www.풀라빛.com

·의류 ·침구류 ·소품
·염색원단 ·감물 ·혼수품

색의 연구가 이 명숙 (루실라)
Mobile : 010-9350-4922
경북 청도군 화암읍 유등리 730번지

삼성화학건설
ISO 9001 인증

방수공사 / 페인트칠
신자 10% 할인

대표번호 1577-2279
김원(토마스) 010-5623-9001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종 훈 (바로우)

진료시간: 아토피|알레르기|시마귀|티눈|건선|무좀
피부미용: 여드름|흉터|기미|잡티|모공|보톡스|필러|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온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성당앞역 3번출구 T.053) 651-8800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476-1400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백두정형외과
www.baekduos.com

정형외과 전문의 배덕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아개 무료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발아정형외과
AL-A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통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너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이애현 피임산부인과
www.piumclinic.co.kr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